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것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잠언 8:17-21, 골로새서 2:3

정 윤 돈 목사님

* **잠8:17-21**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 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 **골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성취의 주역이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인으로 서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깊은 영적 문제와 질병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후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문제를 통해 주시는 절대미션과,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는데, 김사님이 포럼하시면서 딸이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말씀성취라고 생각했다. 후대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학교하며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응답받고 장학금을 받는다. 확실하게 주님을 믿으면 축복도 확실하게 받는다. 저는 수없이 그런 경우를 봤다. 아무리 같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자란 형제여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확실한 응답을 누린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님은 항상 돈이 없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늘 십일조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반면 형제들은 대충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주신다. 형제도 똑같지 않다. 세상 것은 다 양보해도 믿음과 복음, 영적 축복은 양보하지 마라. 참된 욕망을 가져라. 그 가치를 알면 붙잡게 되어있다. 골로새서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물질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정확하게 구하면 정확하게 행복과 삶의 의미가 주어질 것이다. 어떤 연예인은 수백 억을 가지고도 불행하고 힘들다고 말한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먹지도 않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했는데 우리는 이미 도를 깨달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얻는다고 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외우게 하는데, 구약만 가지고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도 그 언약을 붙잡아라. 성경에는 다른 지혜가 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전달하면 다른 지혜를 주신다. 요새는 별을 몇 개씩 달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 법정에 서고 부끄럽다. 이건 행복, 성공이 아니다. 공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진정한 리더자,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의 부, 영적인 부, 행복을 가지면 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주역이 되어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진짜 믿을 때 그 응답을 받는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시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진리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 개인을 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성공자이고 행복자라는 확신을 가져라. 제게는 신학대학원 수십 명의 동기들이 있다. 다들 저보다 똑똑하고 실력있고 큰 교회에 다녔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부족하지 만 가장 복 받은 자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저는 신학대학에 가니까 다 저보다 똑똑하고 실력있고 큰 교회에 다니더라. 그런데 너무 감사했다. 지금 보면 다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동기들 중에 제가 충무인데,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지금은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문제를 개인과 가정에게 주시지만 어려운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다. 환경과 조건, 실력을 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봐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때 그 원한을 들어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기도하라고 하셨다. 여러분도 이 응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제자의 응답을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반면에 여러분은 문제 있고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응답 오지 않냐고 원망한다. 간절히 찾고 기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느낀다. 이 맛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면 항상 멀미하지 않게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시기 바란다. 저는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싶은 분들의 자녀를 보면 정말 다르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조금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시조,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란다. 한 순간도 불신앙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세계사를 보았을 때도 참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시대, 지역과 나라가 가장 잘 살았다. 종교개혁을 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나라는 다 잘 살았다. 반면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개인과 나라에는 재앙이 온다.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전도, 선교,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켜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주신다. 시대마다 그런 인물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망대를 세웠다. 곳곳에 병원과 학교를 세웠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없는 지역이 없다. 우리는 선교사님이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운 혜택을 받고 있다. 참 진리가 선포될 때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절대망대가 되셔야 한다. 다윗은 성을 지키기 위해 일천망대를 든든히 세웠다.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시기 바란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벵갈루루 지역이 인도 과학의 중심지더라. 세계사를 보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지역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사실 여러분이 잘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상숭배하는 그 가정과 개인에게 저주가 와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개인도 행복하고 재앙을 막고 후대들이 응답받는 가정과 가문, 복음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강단메시지가 나왔을 때 깨닫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다. 강단의 제자, 강단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고자 한다. 골로새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신학과 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압축된 성경이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신학적인 편지이다. 특히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를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깊이 알며 전도하고 선교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골로새서는 그런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깨닫는 게 다르다. 골로새서를 받는 성도는 영적 수준이 높았다. 특히 1장 5절에 이 사람들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 성경을 묵상하며 신학적 질문이 생겼다. 당시 골로새교회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에바브라는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후 에바브라에게 영적 질문을 하니까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답변을 받아 다시 골로새로 보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에베소서를 황제의 서신, 골로새서는 황태자의 서신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울이 집중하여 쓴 편지다.

1. **골로새서에 담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즉 복음적인 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교리, 신조, 신앙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종교 개혁 후 수백 년이 지난 후 만들어졌다. 여러 신학자들이 오랜 기간 싸우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다. 골로새서에도 당시의 신앙고백, 신조가 담겨있다.

(1) 첫째로, 골로새서는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생각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다.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정확히 말한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은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먼저 낳다’는 말은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뛰어나며, 그 위에 계신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1장 17절에 나오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만물이 존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붙드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세 조정 되어있는 우주의 모든 것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다. 자연도 바다도 비도 꽃도 그리스도께서 운행하고 움직이신다. 이것을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과거, 현재, 미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만사에 시험 든다.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다. 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만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2)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교회론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근본이시고 반석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성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겠다. 절대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위에 세우시라.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을 세우시기 바란다.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볼 수 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만 출석하지 말고 진짜 믿고 헌신하시라. 미래의 문이 다 열린다. 대충하면 대충 응답받는다.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3) 골로새서 1장 20절은 속죄론과 구원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한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 땅과 하늘과 영적인 게 다 회복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가 남미가 지금 다 우상숭배하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저주 받는다.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참 복음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시라.

(4)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복음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내면 오늘 응답이 온다. 다른 길은 없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시기 바란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복음 양육의 절대목표를 말한다. 그 절대목표는 각 사람과 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양육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날이 온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인물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였다. 교회 안에 약점과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장로님, 성도와 청년들이 있다. 또한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만 전하면 후대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온다. 이번 여름훈련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다락방하고 사역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완전히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때까지 힘을 다해 수고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란다. 반면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배우도록 노력하시라.

(6)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말씀, 복음,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7)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지식과 과학과 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 것은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라.

(8)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절기와 율법은 완성하셨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비판하거나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은 다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성소와 지성소가 그리스도의 족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갈라졌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참된 길 되신 참 선지자이다. 이제는 제사와 절기와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

2.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1)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흑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참된 자유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귀신과 우상숭배,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와 나라를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어디를 가든 복의 근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시기 바란다.

(2)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확실히, 영원히, 깨끗이 해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의 죄,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들의 죄까지도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더라도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용서함을 얻는다. 그때 주님을 부르시라.

(3) 세 번째, 또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한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낸다면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과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참 선지자가 되셨다. 즉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취업, 결혼, 건강 모든 게 다 있다. 신앙생활만 바르게 하고 헌신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만의 길이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오직 깊은 진리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보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다시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져 골로새서와 성경 전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여 복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복 받는 사람으로, 모든 것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